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2014년 8월 노동시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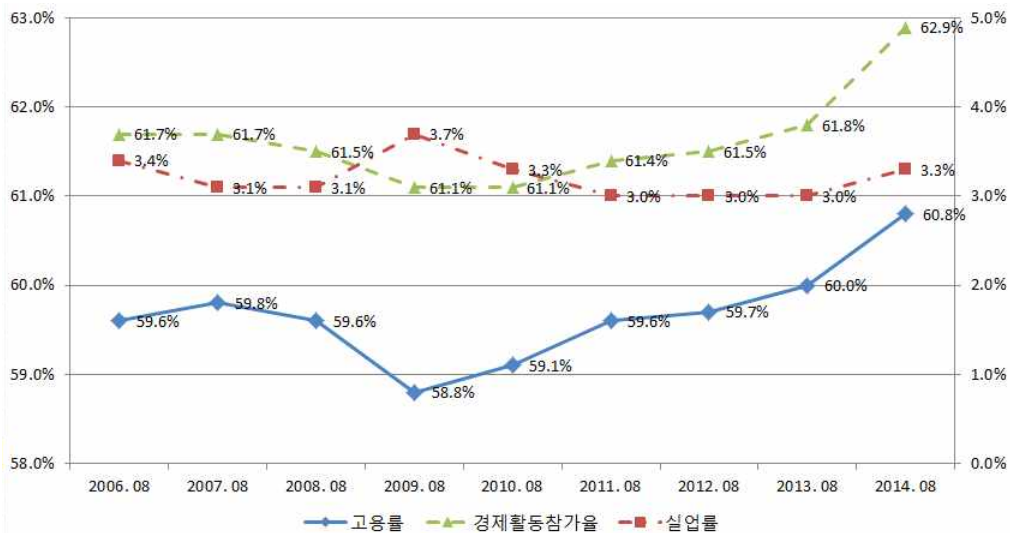
2014.09.12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2014년 8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4년 8월 고용률은 60.8%로 전년 동월대비 0.8%p 상승
- 실업률은 3.3%로 전년 동월대비 0.3%p 상승. 남성 실업률은 3.5%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 동월대비 1.1%p 상승
- 고용지표는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률 60.8%는 2000년 이후 각 연도 8월 고용률 중 가장 높은 수치임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8월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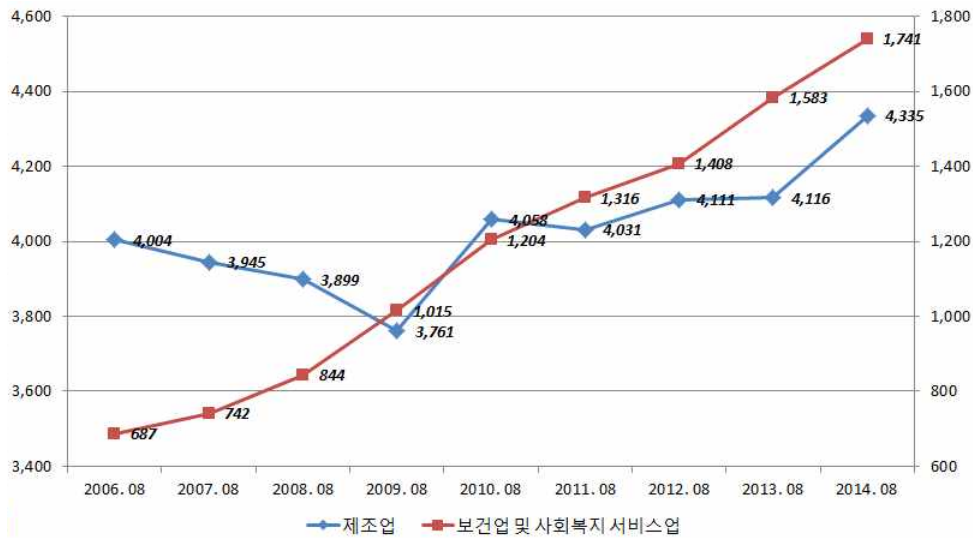
- 여성의 고용률은 50.2%로 전년 동월대비 0.9%p 상승. 여전히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는 2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남성 고용률 71.8%), 2014년 들어 여성의 고용률이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임. 하지만 이런 고용률 상승의 많은 부분이 중고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증대에 따른 결과라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단기 성과위주식의 고용지표 개선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의 고용지표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 개선이 동반되어야 함. 정부는 양적지표 개선정책과 함께 노동시장 질적 측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취업자

- 취업자는 2,588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9만 4천 명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21만 9천 명), 도매 및 소매업(16만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5만 9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12만 5천 명), 건설업(6만 4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2만 5천 명), 금융 및 보험업(-4만 8천 명), 운수업(-3만 5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1만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제조업임. 금융위기를 전후해 4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4년 8월 현재 433만 5천 명까지 늘어남
- 취업자 수의 증가율이 가장 컸던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0% 증가함. 2014년 8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4만 1천명임. 민간부문의 수요 증대와 함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금융위기로 인해 전체 취업자 수 증대세가 둔화된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였음



그림 2.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단위 : 천명)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조업은 좌측 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우측 축 참조

- 성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여성 취업자 수의 증가가 남성을 앞질렀음. 2014년 8월 현재 여성 취업자 수는 1,092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0만 명 증가함. 남성 취업자는 1,495만 8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9만 4천 명 증가. 취업자 수 증가율로 보면, 남성은 2.0% 증가한 반면, 여성은 2.8% 증가한 것임

□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89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만 7천 명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1,579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9만 8천 명 감소함
- 성별로 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더 큼. 2014년 8월 현재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1,046만 7천명임(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3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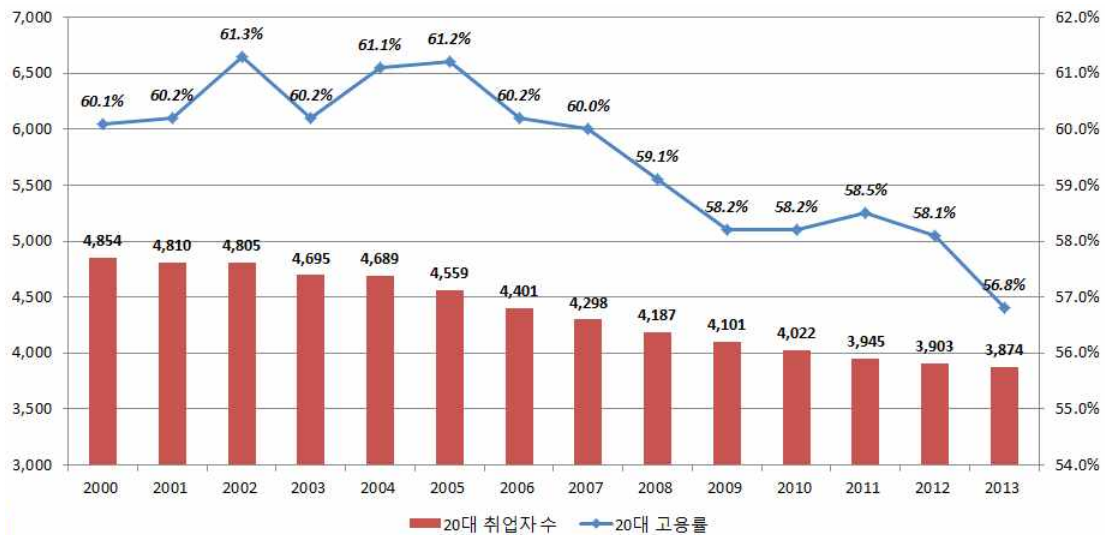


청년층 고용동향

□ 청년고용문제

- 2000년대 들어와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가 계속되면서, 청년층 고용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였음
-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청년층 인구 감소 속도보다 청년 취업자의 수, 일자리 수의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3. 연평균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추이 (단위 : 천 명,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좌측 축,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 청년층 취업자 수, 일자리 수의 감소는 청년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최근에는 대학학자금으로 인한 부채, 생계유지를 위한 부채로 인한 청년신용 불량자 양산의 위험이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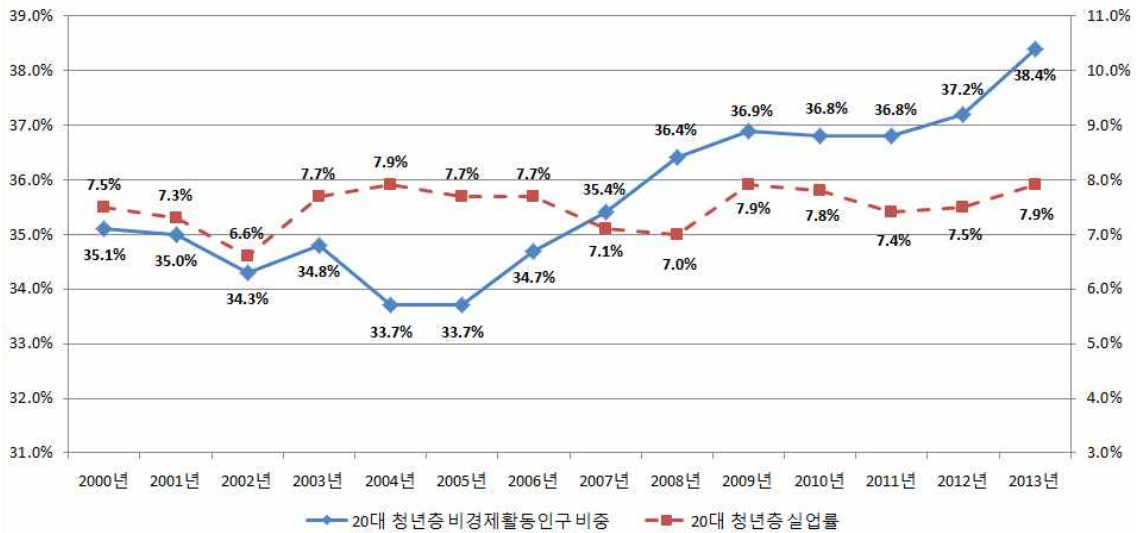


- 지금과 같은 청년고용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고등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직장 경험과 결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 숙련 축적을 저해할 수 있음.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의 감소는 결혼과 출산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고령화와 함께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

□ 청년고용문제의 원인

- 이러한 청년고용문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청년들이 증가하기 때문임
-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인구를 의미함. 노동시장에 참가하려 하지 않으면서 교육이나 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청년니트(NEET¹⁾)족이나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스펙 쌓기에 몰두하며 일자리를 구하려 하지 않는 청년들의 증가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로 이어져 청년고용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음

그림 4. 20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및 실업률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실업률은 좌측 축 참조,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우측 축 참조

1)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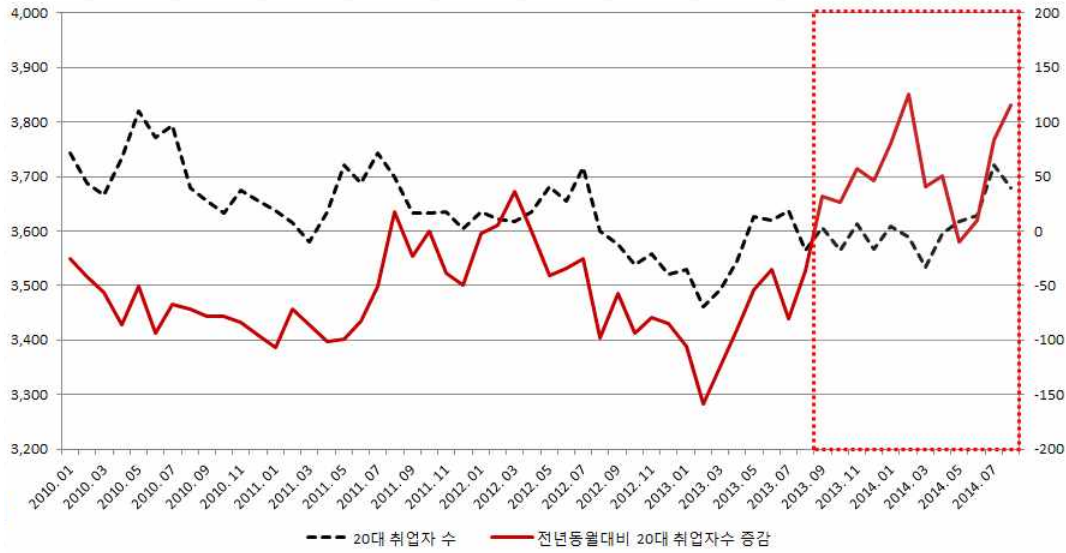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원인은 우선 청년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든 데서 찾을 수 있음. 경제위기의 경험과 그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 세계화로 인한 전 세계적 수준에서의 경쟁 격화 등은 청년층을 위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감소시켰음
-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현실은 연예,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 라는 용어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함.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취업을 해도 연예도, 결혼도, 출산도 하기 힘든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청년들은 많지 않은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해 스펙에 몰두하거나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더욱 노동시장에서 멀어지고 있음

□ 청년고용문제 완화되고 있나?

- 2013년 9월 이후 청년층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짐
- 2014년 들어 20대 청년층 고용률도 전년 동월에 비해 높은 경우가 많음
- 아직 이를 두고 청년고용문제가 완화되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완화추세를 보일 것인가를 살펴봐야 함
- 분명한 것은 여전히 청년고용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임. 2014년 8월 현재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1.6%p 증가한 58.2%이지만, 여전히 2000대 초중반과 비교해 낮은 수준임
- 앞서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 초중반의 20대 청년층 고용률은 60% 이상이었음
- 청년고용문제가 계속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



그림 5.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및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명)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 수는 좌측 축, 취업자 수 증감은 우측 축 참조

그림 6.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단위 : 천명,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 수는 우측 축, 고용률은 좌측 축 참조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정부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서비스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통해 청년고용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 이 과정에서 실업부조를 바탕으로 한 교육훈련체제를 통해 청년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숙련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청년들을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상의 의미를 가짐. 더 나은 복지체계 구축과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임. 🏠



2014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4년 9월 12일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경제	1/15	지뢰밭 속 순항?	정태인
한국경제①	1/16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한국경제②	1/17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혜노믹스	여경훈
복지①	1/20	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료, 민영화 폭탄	이은경
돌봄	1/21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이 되려면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강세진
노동	1/28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복지②	1/29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이은경
노동	4/14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17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는 무엇인가?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21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주거	5/12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강세진
경제	5/19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①	정태인
정치	5/22	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이은경
경제	5/26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②	정태인
노동	6/2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은경
경제	6/5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①	강세진
경제	6/16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②	강세진
복지	6/17	박근혜 2기 개각, 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	이은경
경제	6/19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이상호
의료	6/23	박근혜 정부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이은경
의료	6/26	이제 그런 핑계 대지마	이은경
복지	7/10	돌봄서비스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제언	최정은
노동	7/14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질적 개선 정책도 추진되어야	김수현
경제	7/29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 앞으로도 계속 될까?	김수현
사회적경제	8/4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1) : 사업이 번창해도 실패한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5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2) :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8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3): 무리한 확장과 무관심이 발목을 잡다	이수연
경제	8/22	여전히 심각한 빈곤문제, 더욱 악화된 중고령층 빈곤	김수현
주거	8/25	마을계획 : 주민들의 일상적 사고와 활동의 순환과정	강세진
경제	9/2	MB정부보다 더 강화된 풀뿌리 관광육성정책 파괴	정란수
보건복지	9/5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틀렸다	이은경
보건복지	9/11	9시 등교, 과학적 근거로 접근해보자	이은경
고용	9/12	2014년 8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